

LG화학,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 앞장

LG화학(대표 박진수)은 직원들에게 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LG화학은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침체한 경기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국내로 신혼여행을 가는 직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고 3월4일 발표했다.

결혼식 장소로 오산 리더십센터 등 회사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전문 웨딩플래너로부터 혼수, 예물 등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전한 결혼장려 시책에 동참하는 직원이 출산하면 어린이집 이용의 우선권도 배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원들이 주례 서비스에 나서는 한편 결혼식 화환을 꽃 대신 쌀로 받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3/03/04>